

SW품질인증 통합운영 계획

신기술인증지원과
02-509-7288

배경

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ES(Excellent Software, 우수한자부), GS(Good Software, 훌륭한부)인증 제도를 GS인증 제도로 통합 필요성 제기.

- 감사원('04.12)의 중복 인증업무 지적에 따른 업무분장 재정리.
 - ※ ES 및 GS인증 공히 동일 국제표준(ISO/IEC12119, 9126-2)을 준용하여 시험평가기준을 작성하고, 그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음.

- ES, GS인증의 단점 보완 및 장점을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단일 SW품질인증 제도로 발전이 필요.

기존 인증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「SW품질인증 세부기준 및 절차」 제정과 인증기관 복수 지정·운용 필요.

진행경과

- '08.7.28 : SW인증관련 업무소관을 기표원으로 인원화 추진 지시(장관님).
- SW품질인증제도(ES, GS)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.

- '08.9.8-10.17 : 「SW품질인증 세부기준 및 절차(안)」 마련.
- '08.9.23 : SW품질인증기관 심의 ('08.9.19) 및 결과보고.
- ※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.

인증통합을 위한 「SW품질인증 세부기준 및 절차」 주요 내용

인증대상은 "패키지소프트웨어"에서 "전 분야 소프트웨어"로 확대.

인증대상 SW분야(25개분야)를 명시하고, 지정기관별 인증분야에 대한 평가모듈 제정 추가.

- ※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인증대상 SW분야고시.
- ※ 인증대상 SW분야는 소프트웨어 산업백서 분류체계(2007년)를 따름.

품질인증기관의 업무수행 범위를 지정하고, 품질인증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명시.

인증심사에 대한 수수료 산정 및 징수 근거 마련.



ES인증 제품중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GS인증서로 교체.

효율적인 GS인증평가를 위한 인증기관 확대지정 추진

TTA가 독점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GS인증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 (국민권익위원회 국무회의 보고자료, '08.10)

- GS인증 신청 건수 폭증에 따른 인증평가 수행체제 확대 필요
- * 89건('02년도) · 171건('04년도) · 354건('06년도) · 614건('08.9 현재)

인증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복수기관 선정

- KTL : 7개 SW 분야, TTA : 21개 SW 분야

향후 계획

SW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 및 인증기관 지정고시('08.11.06 예정)

- * ES인증제도를 GS인증제도로 통합하는 것은 ES 인증의 민간이양을 의미

소프트웨어진흥법 13조에 인증기관 취소항목 추가, 법 50조 권한의 위임·위탁 신설 등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검토

GS인증 통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청(우선구매), 조달청(단기계약)등 인증제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6개부처에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 실시

- SW품질인증제도 통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('08.11.06)

- * SW품질인증 세부기준 및 절차 및 SW품질인증기관 내용은 동지 「목차」 법령코너 참조



| 기술 표준 2008.11